



Best People & Best Technology





두산건설

신매탄 재건축아파트 신축현장

Best People & Best Technology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990번지 일대 7천여 평 대지에 펼쳐지고 있는 Best Technology 두산건설의 신매탄 재건축아파트 신축현장(현장소장 안상한 부장)을 찾은 1월 25일, 3천여세대가 들어서는 현장으로 멀리서도 두산워브의 로고가 쉽게 들어온다.

지난 2005년 7월 첫 삽을 뜬 이래 안전으로 일할 맛 나는 환경 친화적인 현장을 구축한다는 의지로 무사고 현장을 이루고 있는 안상한 소장이 이곳을 찾은 한경보 회장을 반갑게 맞는다.

이날 한경보 회장이 이 현장을 찾은 것은 수원시청 건축과에서 수원시의 대표적 우수 현장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뜻을 전해온 것이 계기가 되었다. 현장에 들어서며 가장 먼저 받은 느낌은 환경 친화적인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단지 내 주요 도로를 포장한 점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지난 85년 그룹에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현장에서 생활하며 신기술 도입과 품질개선, 안전경영, 환경개선에 힘써온 안상한 소장, 그의 열의는 이곳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DOOSAN 연구소 수준의 품질개선 활동

두산건설이 이곳 현장에 적용한 품질개선 사례를 보면, 주차장 시공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수누름콘크리트 균열방지제(슈퍼콘셀) 도입을 비롯해, 아파트의 벽 건축면 품질 향상을 위한 고로슬래그 시멘트 사용, 공기단축과 품질을 업그레이드시킨 기계설비 이중관공법, 현장 내·외 배선 설치 개선 등을 도입해 품질에 만전을 기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단지 내 주요 도로를 선포장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있는 현장이기도 하다.





한경보 회장과 대담중인 안상한 현장소장

“무엇보다 우리 현장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안전활동입니다.”

안상한 현장소장은 대리시절 (91년 말부터 93년 8월까지) 본사 안전관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말해주듯 안전에 대한 철학은 확고하다.

일일 유동인원이 1,300명에 이를 때가 있을 정도로 대규모 공사이다 보니 안전에 소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곳 현장에는 건물 주출입구 35개소와 건설용 리프트 방호선반 21개소, 방호선반식 안전통로 385m등을 설치해 각 동 주변접근 방지구역(Safety Zone)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3대 재래형 재해 추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현장 내 모든 직원 및 근로자는 신규채용자 교육필증을 교부 받아야 작업에 투입할 수 있게 하였고, 2개소의 안전통제실과 체험 안전교육장을 통해 다양하고도 철저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DOOSAN 일할 맛 나는 현장조성

도심공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하 주차장 개방으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장소장 안 상 한 부장

-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졸업
- 성남시영아파트현장 소장
- 연세중앙교회신축현장 소장
- 15년 근속상 수상
- 품질관리 우수현장 표창 수상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06년12월)





현장사무동 앞에서 힘찬 다짐을 결의하고 있는 수원시 신매탄현장의 두산인

건설현장이 주는 식막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현장 외부에 화단을 설치 조경 작업을 하였다. 또한, 내부에는 각종 야채를 키우는 텃밭 등을 가꾸 안전쉼터를 운영하였다. 하절기에는 제빙기, 음료수대, 화장실, 샤워장등을 주요구역에 설치해 근로자 인권개선 차원의 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DOOSAN 무재해 마일리지제도 실시로 협력업체의 자발적 안전활동 유도

두산건설은 전사적으로 현장의 무재해 배수 달성 시에는 시공에 참여한 협력업체의 무재해 달성시간을 마일리지로 관리하고, 연도별 단위로 누적된 무재해 마일리지 실적 상위 업체는 가산점을 부여해 차기 수주가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안전 활동은 강제적 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점검·규정 등으로 보호구착용의 의무화, 안전시설 설치 법제화 등 규제 중심의 안전 활동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율 안전으로 가는 길은 우리의 노력이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합니다.

규제 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쾌적한 환경조성, 복리후생 등이 펼쳐질 때 근로자들의 의식도 올라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상한 현장소장을 구심점으로 친환경적인 현장, 인간적인 현장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는 수원시 신매탄 두산건설 현장은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두산건설이 산업 안전을 활짝 펼쳐가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는 현장이다. ☺

